불일암에서의 15년, 나를 돌아보다



무언화
덕조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2000원

법정 스님 맏상좌 덕조 스님 수상집
매일 아침 쓴 글·직접 찍은 사진
"자연에서 '나'를 돌아본 시간"
침묵·비움으로 '자기 질서' 찾아야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12월 9일 열린 〈무언화〉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덕조 스님은 "불일암에서의 15년은 은사 스님이 저에게 주신 '보상 휴가'"라고 말했다.



덕조 스님이 찍은 '빠삐용 의자'. 법정 스님이 1975년 불일암을 지은 후 이듬해 땔나무를 이용해 제작한 의자다. **사진 제공=조계종출판사**

"책 부제는 '깨달음의 꽃'이라고 썼는데, 사실 망상의 꽃입니다. 그러나 그 망상 속에서도 자신을 되돌아볼 길이 열리더군요."

법정 스님의 맏상좌 덕조 스님(서울 길상사 주지)이 신간 〈무언화〉에 대해 밝힌 소감은 담담했다. 스님은 "수행자가 책 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닌데, 인연이 닿아 글과 사진을 묶어 출간하게 됐다. 모두 망상의 파편들"이라며 웃음 지었다.

덕조 스님은 2010년 법정 스님 원적 후 유언에 따라 순천 송광사 불일암에서 수행 정진했다. 15년 만에 길상사로 돌아온 덕조 스님은 은사 스님이 당부한 '10년 수행'을 '휴가'라고 표현했다.

"한창 젊은 나이에 길상사에서 12년을 살았어요. 하루 세 시간 이상을 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지치고 지쳤을 때, 불일암에 가게 됐지요. 은사 스님이 저에게 보상 휴가를 주셨다고 생각될 정도로 지난 15년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일암에서의 일상이 여유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법정 스님 원적 후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좇아 불일암을 찾는다. 이들은 깨끗하게 쓸린 마당에서, 정갈하게 가꿔진 채마밭에서 '법정 스님의 손길'을 느끼려 한다. 그러니 한시도 도량 관리에 소홀할 수 없었을 터.

"불일암과 저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자 은사 스님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책은 덕조 스님이 불일암에서 매일 아침 쓴 글과 직접 찍은 사진을 담은 책이다. 어려운 용어 대신 일상의 언어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새겼다. 이해인 수녀가 추천사에 쓴 것처럼 "일상의 도량에서 다시 정진할 수 있는 밝은 힘과 용기"를 전해주고 "가만히 명상하며 내면으로 웃고 깨달음을 고요히 피어오르게"하는 글들이다.

"대빗자루로 허공을 쓸어도 흔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으니 집착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83p '흔적' 중에서

스님은 현대인들의 문제를 '자기 관리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몸이 아닌 마음과 영혼을 맑게 관리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는 뜻이다.

"현대인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데, 비교를 떠나면 '절대 불행'은 없습니다. 무소유의 정신도 여기서 시작하지요. 자연 속에서 마음을 늦추고 비우면 덜 불행해질 것입니다."

특히 법정 스님의 '자기 질서'를 강조하며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감시하고 바라보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는 불일암 생활 15년 동안 변함없이 새벽 예불을 올리고 대중생활 규칙을 유지해 온 스님의 태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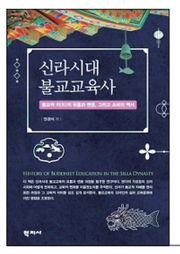
올해 진행된 길상사의 '무소유 템플스테이'는 현대인들이 '자기 질서'에 따라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다. 참가자들은 휴대 전화와 시계를 모두 반납하고 묵언해야 한다. 저녁 식사는 고구마나 옥수수로 대신한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적고, 하나씩 지워 나가는 '무소유 명상'도 진행한다.

"다들 처음엔 불안해하지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모두 대만족합니다. 말 없이 지낸 그 하루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침묵과 덜어 냄 속에서 보낸 하루를 온전히 나 자신으로 채우는 경험은 곧 '자기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불일암에서의 시간이 성찰이자 인고이고 비움이자 감사였다고 말하는 덕조 스님은 책을 통해 우리를 조용히 격려한다. "삶은 결국 지금을 온전히 사는 일"이라고.

신라인의 가르침 '감통'
〈感通〉



신라 시대
불교교육사
안경식 지음
학지사
2만3000원

신라 시대를 '불교적 지식의 유통·변용·소비'라는 렌즈로 새롭게 읽어낸 불교교육사 탐구서다. 30여 년간 관련 연구에 천착해 온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향유하는 것은 신라인이 그것의 유통과 변용, 소비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짚는다.

1장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역사를, 2장은 신라 유학승들의 활동을 살핀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자장·원효·의상·진표 스님 등 고승들의 교육자적 모습에 주목한다. 7장부터 9장까지는 아미타·미륵·관음신앙 등 민중불교가 신라인의 교육에 미친 영향을, 10장은 화엄사상이 신라 불교교육에 끼친 파장을 고찰했다. 11장은 강경의례와 불교교육의 상관성을, 12·13장은 신라 하대 선불교가 도입되는 과정을 정리했다.

저자는 "신라인들은 거룩한 불보살과의 감통(感通)을 통해 불교적 지(知)를 내면화하게 되고, 이때부터 지의 유통자 즉 교화자로 나서게 됐다"며 "신라 시대의 불교교육사는 한마디로 감통의 교육사, 감응의 교육사다. 이는 신라인이 '무감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러 준 교육의 말후구(末後句)와 같다"고 강조한다.

여수령 기자

청소년 고민에 붓다의 답은?



붓다에게 물어봐!
박영동 지음
해조음
1만3000원

청소년들은 불안하다. 학업 경쟁에 진로 고민에 친구들과의 문제까지.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는데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상대도 찾기 어렵다.

30여 년간 불교 종립학교 교법사로 청소년과 부대끼며 생활하며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저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건넨다. 완성된 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충분하다고, 이미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응원하기 위해서다.

책은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던진 후 그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제시하고 경전 한 구절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구성했다.

또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인다'는 고민에는 "부처님도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알려 주고 "세상이 불공평하더라도 너의 마음까지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단다. 작은 정의, 작은 자비, 작은 용기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고 다독인다.

또한 책에는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다르면 이상해 보여요', '진심을 말하면 멀어질까봐 겁나요', '진로를 떠올리면 막막하고 겁나요' 등 60가지 고민에 대한 답이 담겨 있다.

마음·관계·공부·미래 등 6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지만 순서에 상관없이 눈길이 머무는 질문을 찾아 읽으면 된다. 한 꼭지를 읽고 난 후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이 말이 내 삶에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 봄으로써 그 뜻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다.

저자는 "어렵고 고리타분한 설명 대신 부처님처럼 묵묵히 곁에 앉아, 함께 생각해 보는 작은 지혜를 건네고 싶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마음·관계·미래 등 60가지 고민 정리
30년 경력 교법사의 '해답' 아닌 '공감'

'스마트폰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다'는 고민에는 먼저 "자꾸만 손이 가고, 없으면 불안하고, 중요한 일보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소식들에 마음이 끌릴 때 자신도 조절되지 않는 그 감각은 어느새 혼란과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지금 그걸 느끼고 있다면 이미 너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격려한다.

이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 동안 숨 고르기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기 △자기 전에 전원을 끄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갖기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는다는 건 단지 무언가를 참는 일이 아니라 나를 더 아끼고, 나와 더 가까워지는 연습"이라고 다독인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따뜻한 한마디를 전한다.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땐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쉬렴. 너의 하루를 빛나게 할 시간은 작은 침묵 속에 숨어 있단다. 나는 언제나 그 고요한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청소년 마음 밭을 일궈 가는 저자의 성심과 수행력, 도반애를 찬탄한다"며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의 용기와 신념이 더욱 굳세고 바르게 자라기를 발원한다"고 추천사를 썼다.

저자 박영동 씨는 동국대 불교학과와 한양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급 청소년지도사와 윤리·상담·종교 교사 자격을 취득했다. 공군 군종법사, 종립학교 교법사, 동국학원 수석법사, 전국교법사단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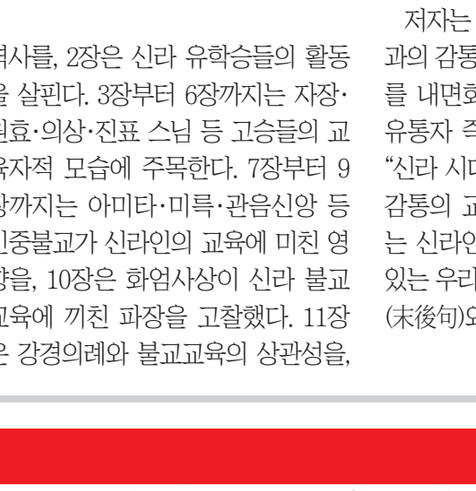
불교성전편집위원회 기획위원으로 불교 교육 코텐츠 확장에 기여하고,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연구소장으로 청소년 포교의 방향을 모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상과 교육원장상, 서울특별시교육감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 〈청소년 통일법요집〉, 〈청소년 불교입문〉, 〈불교 내비게이션〉 등을 펴냈다. 현재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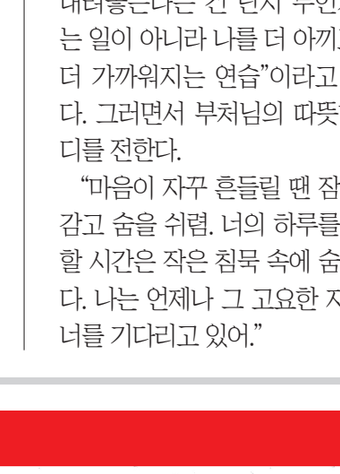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스테디셀러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